

## ‘최고 부자동네는 해남군’...전남 1억원 이상 고소득 증가



전남에서 연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의 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도내 농가소득 5000만원 이상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 소득 1억원 이상 농가는 5547호로 2019년 대비 7.4%인 381호가 증가했다.

소득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농가가 4177호로 전체 고소득 농가의 75%를 차지했다.

이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20%인 1127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 5547호...지자체 비해 7.4% 증가  
고품질 농축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축산 규모화 영향 짙

호(20%), 5억원 이상도 4%인 243호로 나타났다.

경영 형태는 축산농가가 2115호로 3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식량 1922호(35%), 채소 747호(14%), 과수 271호(5%), 유통 253호(5%), 특용 95호(2%), 화훼 53호(1%), 기타 91호(1%) 순이다.

시·군별로 가장 많은 지역은 해남군으로 604호(10.9%)를 기록했으며, 강진군 565호, 고흥군 552호, 영광군 445호 등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최다인 1925호(35%), 60세 이상 64세 미만 1391호(25%), 65세 이상 1221호(22%), 40대 721호(13%), 30대 260호(4%), 30대 미만 29호(1%) 순을 보였다.

연도별로 2016년 4342호, 2017년 4562호,

2018년 527호, 2019년 5166호, 2020년 5547호로 최근 5년 간 매년 증가했다.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율, 증가폭이 7.4%, 381호로 2019년 2.8%, 139호와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

도 전체 농가 14만4000호 중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가 차지한 비율도 2016년 2.9%, 2017년 3.1%, 2018년 3.5%, 2019년 3.6%, 2020년 3.9%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남도는 고소득 농가 증가 원인을 고품질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축산의 규모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지자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판로 확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남도장터 등 온라인 쇼핑몰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 매출이 증가했다.



해남군청과 해남읍 전경. (사진=해남군 제공)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소득 농업인의 성공 사례를 집중 홍보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이다”며 “고품질 브랜드 육성과 가공

유통 판매 활성화를 통해 돈이 되는 농업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나주 거주 시리아인 연쇄 감염...‘영국발 변이’ 검사

전남609번 가족·친인척 13명 확진

나주에서 전남지역 최초로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된 가운데 지표 환자인 전남609번(시리아인 거주자)의 친인척을 중심으로 또 다른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전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나주에서 시리아인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발생했다.

일차별로는 11일 2명(전남 770·771번), 13일(전남 773번), 14일 2명(전남 775·776번) 등이다.

이들 5명 중 감염원으로 추정하는 확진자는 전남 770번이다. 경기도 여주에 거주하는 전남770번은 나주에 거주하는 771번의 조카이다.

그는 지난 6일 나주를 방문했다가 이상 발열 증세를 보여 이모와 함께 나주시보건

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여주 자택으로 복귀한 후 11일 양성 확진 통보를 받았다.

조카와 밀접 접촉한 시리아인 이모(전남 771번)도 이날 함께 확진됐다.

보건 당국이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771번 가족 8명을 나주 공산면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조치하고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13·14일 이틀간 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문제는 이들 확진자들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전남 1호 환자’로 분류돼 나주 다도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인 시리아인 남성(전남 609번)과 친인척 관계라는 데 있다.

방역 당국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최근 확진된 시리아인 5명에 대한 정밀 유전자 검사를 질병관리청(광주전남권역센터)에 의뢰해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이번 주 내로 나올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 호남권역 코로나19 백신 접종...군·경찰 동원 모의훈련

백신접종 실무자 오늘 중앙의료원 교육  
19일 이후 운송부터 접종까지 최종점검

호남권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이달 말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백신 운송을 담당할 군·경찰 등과 함께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15일 광주시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 설치된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접종 대상은 전담병원과 중증치료병상,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 4000명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지역 보건소장·지역협의회 회의를 잇따라 열고 백신 접종에 대해 논의한다.

또 16일에는 시와 일선 자치구 방역 담당자가 중앙의료원에서 열리는 백신 접종 교육에 참석한다.

백신 접종 관련 계획이 전반적으로 수립되

면 오는 19일 이후 운송부터 접종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훈련은 제약회사로부터 백신을 받아 호남권역접종센터로 옮기는 것부터 각 지역 접종센터로 운송하고 실제 접종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모의훈련을 통해 문제점이 없을 경우 백신 실제 접종은 이달 말에 우선접종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운송은 군과 경찰 등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공항에 도착해 전용 창고에 보관되는 백신은 지역별로 분산되며 차량 등을 통해 호남권역접종센터로 운송된다.

군과 경찰은 운송 과정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특수부대 인력과 특수차량 등을 동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호남권역접종센터에서 각 자치구 접종센터 운송도 군과 경찰이 직접 담당하고 경호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광주 동구 지산동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 설치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호남권역예방접종센터를 점검하고 있다.

광주 지역별 접종센터는 동구 문화센터, 서구 염주체육관, 남구 다목적체육관, 북구 전남대스포츠펀드센터, 광산구 보훈병원 재활체육관 등에 설치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자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전체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모의훈련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